

# 차기 은행연합회장 정·관·민 ‘7파전’... 다음주 최종 결정

10개 은행장들 모여 후보군 확정  
김광수·민병두·이정환 후보 ‘유력’  
최종구·윤대희·김용환, 회장 고사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은행연합회 회장 추천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군이 7명으로 좁혀졌다. 정치권을 비롯해 관료출신과 전·현직 은행권 수장까지 두루 이름을 올렸다. 최종 단독 후보자는 다음 주 중으로 결정된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KDB산업·IBK기업·SC제일·한국씨티·경남 등 10개 은행장들은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조찬을 겸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갖고 차기 회장 통리스트(후보군)를 확정했다.

후보는 (가나다순) 김광수 현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김병호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대훈 전 NH농협은행장, 이정환 현 주택금융공사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연임 관련) 이야기 나올때 한편으론 부담스럽고 한편으론 감사했지만 룡리스트에서는 빼고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유형의 미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먼저 정치인 출신으로는 민병두 전 의원이 회장 경쟁에 뛰어 들었다. 3선 의원 출신이며, 오랜 기간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만큼 은행권 현안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정무위원장도 맡았다. 여당 출신이라는 점은 장점이지만 금융권 경력은 없다. 지금까지는 보통 행정 출신이 은행연합회장직을 수행

해 왔다.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과 이정환 주택금융 사장은 관료 출신으로 꼽힌다. 둘 다 현직에 있다는 점도 같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4월이며, 이 사장은 내년 1월까지다.

행시 27회인 김 회장은 재경부 금융정책과장과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등을 거쳤다. 지난 2018년 4월 NH농협금융 회장으로 선임됐으며, 한 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이 사장은 행시 17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재경부 국고국장국과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을 지냈다.

민간출신은 김병호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대훈 전 NH농협은행장 등 네 명이다.

김 전 부회장은 최근 KB금융지주 회장 후보로도 이름을 올린 바 있으며, 신 전 사장은 3년 전에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인물이다.

금융권에서는 김광수·민병두·이정환 등 3파전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관료들이 금융협회장 자리에 도전하면서 ‘관피아’ 논란이 불거졌지만 여전히 업계를 대표해 은행권의 목소리를 내려면 정·관 출신의 힘있는 인물을 선호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관피아 논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행장들이 각자 판단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사회는 다음 주 중으로 차기 회장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정기 이사회가 열리지만 일정상 하루 이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정치권 수수료 인하 압박에... 카드사 ‘난색’

“이미 한차례 인하 후 수익성 악화  
재 인하땀 수수료 역마진 구조”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연 매출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3억원 이하	0.8%	0.5%
3억원~5억원	1.3%	1.0%
5억원~10억원	1.4%	1.1%
10억원~30억원	1.6%	1.3%

(자료=금융위원회)

카드업계가 정치권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구 움직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수수료율 인하가 수차례 이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만큼 또 다시 인하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인석 의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금이나 부담금 비율이 높은 물품의 경우 연간 매출액 산정 때 제세부담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3억원 이하 0.8%(신용카드)·0.5%(체

크카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동네 마트의 경우 담배 판매 비중이 높아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적음에도 매출액이 늘어나 높은 기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이들의 수수료를 깎아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6월 영세가맹점에서 발생하는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면제, 매출규모 관계없이 전통시장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카드업계에서는 이미 가맹점 수수료를 연이어 낮춘 만큼 계속된 수수료 인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90퍼센트가 넘는 가맹점들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 차례 더 수수료 하향을 진행한다면 결국은 가맹점 수수료가 역마진 구조로 바뀌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도 이미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영세업체는 1% 미만의 수수료가 매겨진 상황이며, 여기에 카드 매출액의 1.3%의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여 파로 결국에는 카드사 회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혜택이 뛰어난 일명 ‘해자카드’의 단종 소식이 줄을 이었는데 이는 카드 수수료 인하와 무관하지 않다”며 “가맹점 수수료 영향이 돌고 돌아 현재 고객이 받고 있는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영석 기자 ysl@

## 신한금융 ‘자신감 키우기’ 캠페인 성료

SNS 1000만 뷰, 미션참여 3000건

신한금융그룹은 17일 밀레니얼 세대를 위해 지난 3개월간 진행한 ‘자신감 키우기’ 캠페인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자신감 키우기’는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2030세대들을 대상으로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유도해 자기만의 미래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하는 SNS 캠페인이다.

신한금융은 취향, 개념, 운동, 인맥, 금손의 다섯 가지 미션을 주제로 각각 2주간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젊은 세대들이 미션을 실천한 영상 또는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해시태그를 남기는 것으로 간편하게 참여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신한금융은 동방신기 유노윤호와 함께 미션 주제별로 가이드 영상을 만들



고 캠페인 참가자들에게 추천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전달하며 젊은 세대들의 많은 동참을 이끌었다.

그 결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영상 콘텐츠 조회수 1000만 뷰, 미션 참여 약 3000건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캠페인을 마무리했다.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은 “앞으로도 밀레니얼 세대가 우리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우리은행 ‘WON금융인증서’ 출시

우리은행은 17일 금융권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WON금융인증서’를 출시했다.

다음달 10일 개장되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이번에 출시한 WON금융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의 범용성과 사설인증서의 편리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또한 인증서를 PC나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고 클라우드에 저장해 PC와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다.

비밀번호 입력방식은 ▲PIN(비밀번호 6자리) ▲패턴 ▲생체인증이 적용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다. 로그인과 이체 거래의 인증 방법을 다르게 해 보안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인증서 유효기간이 3년 주기로 자동 연장돼 매년 발급했던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WON금융인증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범용성을 갖춘 금융권 최초의 금융인증서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



서 이용 가능하다”며 “빠르고 편리한 금융인증서 제공으로 고객의 이용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ysl@

## “생활요금 자동납부하고 청구할인 받아요”

BC카드, 최대 4만5000원 할인

BC카드가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전기요금, 통신비 등 생활요금 자동납부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4만5000원 청구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연말까지 BC 신용·체크카드로 자동납부를 신규 신청하는 고객 대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제공한다. ▲아파트관리비 1만원 ▲도시가스 5000원 ▲전기요금 5000원 ▲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5000원 및 6개월 납부대행 수수료 ▲학부모부담금(스쿨뱅킹) 1만5000원 ▲KT통신비(유무선) 5000원 등 최대 4만5000원을 청구할인해 준다.

자동납부 신청은 BC카드 홈페이지,



페이스북 앱, 고객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장길동 BC카드 마케팅본부장은 “자동납부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BC카드는 자동납부 서비스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동시에 차별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